

최성국-루시오 '화력쇼' 맞대결

(광주 상무) (경남 FC)

“월드컵은 잊어라”... K리그 본격 순위 싸움
 전남 지동원·서울 이승렬 신예 대결도 관심

2010 K-리그가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들어간다. 월드컵 방학을 끝낸 K-리그는 지난 10일 전남-포항, 전북-대구의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일정에 돌입했다. 숨을 고르고 있던 각 팀들은 17·18일 전국 7개 그라운드에서 순차적으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광주 상무는 17일 오후 7시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남 FC와 후반기 첫 대결을 갖는다. 지난주 포항 스틸러스와의 첫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남 드래곤즈도 같은 시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한다. 9위를 달리고 있는 상무는 만만치 않은 경남을 만나게 됐다. 5위 경남은 월드컵 휴식기간 루시오를 제

외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등 선수층을 보강했다. 반면 상무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정우가 4주 군사훈련을 받느라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 상무와 경남의 경기는 최성국과 루시오 두 에이스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상무 최성국은 전반기 3골 1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지만 공격적인 돌파에 따른 드리블과 감각적인 슈팅으로 상무의 공격을 책임졌다. 루시오는 전반기 9골을 터트리며 득점 1위에 올라있다. 지난 14일 컵대회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는 등 막강 화력으로 최성국과 맞붙는다. 10위를 지키고 있는 전남은 서울과 만나 후반기 첫 승 사냥에 나선다. 서울은 전반기 7승4패를 수확하며 4위로

전남에 앞서있지만 지난해 '악연'에 올랐던 아픈 기억이 있다. 서울은 지난해 전남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6골을 몰아넣으며 6-1 대승을 거뒀다. 전남은 안방에서 패배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그러나 전남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정규리그 1위에 도전했던 서울을 1-1로 막아섰다. 이 무승부로 서울은 3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전남은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난 서울을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며 서울의 우승 꿈까지 무산시켰다. 지난해 악연에 올고 웃었던 두 팀은 신예 선수들을 앞세워 승점 더하기에 나선다. K-리그 신인왕을 노리고 있는 전남 지동원(19)과 남아공에 다녀온 국가대표 이승렬(21)이 그라운드에서 만난다. K-리그 성적만으로는 지동원이 한수 위다. 지동원은 5골 2도움을 기록하며 3골3도움의 이승렬에 앞서 있다. 하지만 이승렬은 큰 무대에 다녀오면서 자신감을 더했다. 신예 선수의 패기와 창의적인 플레이가 주말 서울월드컵 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호곤 현대감독 대표팀 감독 고사

차기 축구대표팀 사령탑 후보였던 김호곤(59) 울산 현대 감독도 대표팀 감독직을 고사했다. 김호곤 감독은 16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소속팀과 계약이 남아 있고 시즌 중이다. 계약 기간 팀에 남아 내가 할 일을 마치는 것이 순리다. 울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겠다”며 대표팀 감독직 제의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감독과 울산의 계약은 올해 말까지다. 김 감독은 유력한 차기 대표팀 사령탑 후보 중 하나였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가 5명 안팎으로 압축한 최종 후보군에도 올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정해성 대표팀 수석코치와 홍명호 올림픽 대표팀 감독, 최광희 전북 현대 감독, 황선홍 부산 아이파크 감독 등에 이어 대표팀 사령탑 포지션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빠들이 못한 8강 간다

태극남자 스위스 4대 0 대파... 오늘밤 가나와 한판

U-20 여자 월드컵

월드컵 무대에서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업적을 달성한 한국 축구가 이번에는 '2010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이라는 또 한 번의 기적에 도전한다. 그 중심에는 '특급 골잡이' 지소연(19·한양대)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지소연은 지난 14일 치러진 대회 D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뽑으면서 4-0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한국 선수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대회에서 헤트트릭을 뽑은 적은 많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남아공 월드컵 올스타팀도 스페인 태반

비아 등 6명 올라

올스타팀에 이름을 올렸다. 올스타팀 사령탑도 비센테 델 보스케 스페인 대표팀 감독이 차지해 남아공 월드컵 올스타팀은 사실상 스페인 대표팀이라 해도 무방해 보인다. 이밖에 최우수선수상 격인 골든볼을 수상한 우루과이 공격수 디에고 포를란(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과 준우승국 네덜란드의 미드필더 베슬러이 스네이더르(인터 밀란), 3위 독일 대표팀의 주장인 수비수 필립 람(바이에른 뮌헨)과 미드필더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이상 바이에른 뮌헨), 브라질의 수비수 마이클(인터 밀란)이 올스타팀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황제의 샷'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15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1라운드 16번홀에서 퍼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용은, 두번째 메이저 왕관 노린다



브리티시오픈 첫날 공동 8위 매길로이 9언더파 단독 선두

한동안 잠잠했던 양용은(38·사진)이 제 139회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에서 두번째 메이저 왕관을 차지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PGA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 16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파72, 7천305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뽑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로 공동 8위(5언더파 67타)에 올랐다. 유럽의 셋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메이저대회 최소타 타이 기록인 9언더파 63타를 적어내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최근 3개 대회에서 모두 컷탈락하는 등 부진했던 양용은은 두번째 메이저 우승컵을 향해 험난 발걸음을 내디뎠다. 양용은은 1번홀(파4)에서부터 버디를 잡아나가는 등 전반에 2타를 줄이더니 후반에는 버디 3개를

추가하며 상위권에 진입했다. 올해 브리티시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출전권을 따낸 정연진(20)의 선전도 눈부셨다. 정연진은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로 이시카와 료(일본), 헨릭 스텐손(스웨덴), 비제이 싱(피지) 등과 함께 공동 17위에 이름을 올렸다. 수많은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했지만 1라운드 스타는 매길로이였다. 매길로이는 2009년 2월 유럽프로골프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최연소 우승기록을 세워 단숨에 세계 골프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해부터 미국 무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매길로이는 9번홀(파4)에서 이글을 기록하는 등 전반에만 3타를 줄인 뒤 후반에 버디 6개를 쓸어담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미국)도 5언더파 67타를 때려내며 공동 8위에 자리해 매길로이의 돌풍이 마지막 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대회에 처음 출전한 김경태(24·신한금융그룹)는 2언더파 70타를 쳐 나상욱(27·타이블리스트)과 함께 공동 45위

에 올랐다. 퍼터를 바꾼 최경주(40)는 4오버파 76타를 치며 박재범(28·백건골프) 등과 공동 134위로 밀렸다. /연합뉴스

추신수 복귀 빨라질듯 손가락 부상 재활 순조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복귀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는 16일(한국시간)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가락 부상을 피한 채 재활에 전념해왔다. 애초 6~7주 진단이 나왔지만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복귀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부음

▲임묘숙씨 별세 박경중(전 나주 문화원장)·경양(목포대 교수)·경환씨 모친 상 강정숙(전 나주시의원)·김수자(약사)씨 시모상=발인 18일(일) 나주 중앙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061-332-4454.

▲고옥순씨 별세 윤병모·병호·병문·기남·이덕씨 모친상=발인 18일(일)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김양근씨 별세 최연춘·아모·아순·삼순씨 모친상=발인 17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금호장례식장

故 김양근씨(남/77세) 子 孫 양승/서경순 호실 201호 장남/김기복, 재승/발인 7월 17일 女/류 양귀애/양인호 장지 화산이향 장모/	故 김용준씨(남/87세) 子 孫 김완진/이미선 호실 401호 장남/김영민 발인 7월 18일 女 김미경 장지 나주외곡동 장모 김복순 장지 나주외곡동
故 박귀진씨(남/81세) 子 孫 귀한규/김선순 호실 101호 장남/김정민 발인 7월 17일 장지 영락공원	謹 弔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 (062)250-4455